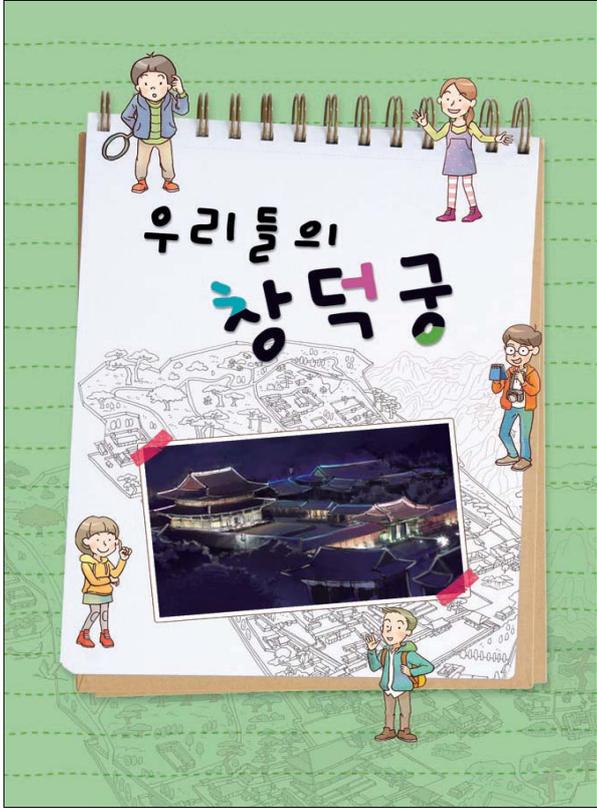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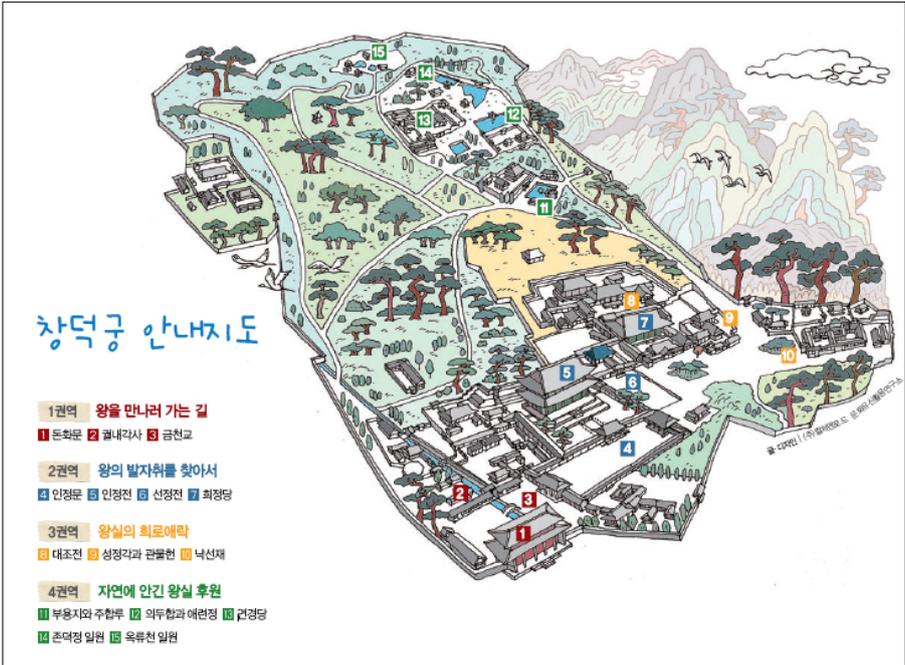


<우리들의 창덕궁> 사진자료



안내책자 표지



창덕궁 안내지도 삽화

왕을 만나러 가는 길

명당수 건너 임금님이 살고 계신 곳
다리 아래 흐르는 맑은 물, 금천(金川).
그 물 너머엔 임금님이 살고 계시죠.

덕이 높은 학자를 상징하는 회화나무를 지나서
비단처럼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금천(金川)에 다다르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여
어도를 곁에 두고 길을 가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신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볼까요?



웅장한 궁궐 문, 돈화문(敦化門)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문이다. 돈화문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2층에서 큰 종과 북을 두드려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주었다. 돈화문은 5칸으로 되어 있어 매우 웅장한 느낌을 준다. 양편의 문보다 조금 큰 가운데 문은 왕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돈화문

회화나무를 심은 까닭은?

돈화문을 들어서면 왼쪽과 오른쪽에 여덟 그루의 회화나무가 보인다. 궁궐에 회화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주나라(BC 1046~BC 771)부터의 일이다. 회화나무는 학식이 높은 학자를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창덕궁 입구에 회화나무를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회화나무

200여 년 전 창덕궁의 모습

국보로 지정된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열여섯 폭(576 x 273cm) 비단에 색을 입혀 그렸으며, 1826년에서 1830년 사이 궁중 화가들이 그린 작품으로 추정된다. 동궐도에서는 궁궐 안의 건물뿐 아니라 다리, 정원의 돌, 장독대까지도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또한, 각 건물의 이름도 쓰여 있어 궁궐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동궐도

쓰지 않은 마지막 화살

영화당에 문신과 무신이 모두 모여 시험 보는 날, 활쓰기 시범을 보이던 임금님(정조, 재위 1776~1800)이 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만 됐다. 마지막 한 발은 쓰지 않겠다."
"왜 이번 마지막 발을 쓰지 않으시는지요?"
이를 인아하게 생각한 신하들이 물으니 임금님이 말했다.
"활쓰기를 40발에 멈추는 것은 모조로 명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자신감 넘치는 임금님의 말에 신하들은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어. 그러나 임금님이 활을 들어 아주 작은 과녁에 화살을 명중시키자 신하들은 임금님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신공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준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활쓰기 시범을 명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 오늘 시험에 수석을 한 자에게는 큰 상을 하사할 것이니 그대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하시오. 재 아서 시험을 사죄하라."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1792년 11월 26일)]

너른 마당이 있는 영화당(映花堂)

부용지 동쪽 높은 축대 위에 영화당이 있다. 영화당 앞에는 '춘당대(春塘臺)'라는 이름의 넓은 마당이 있었다. 이곳에서 왕이 연회를 열거나, 직접 과거시험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또한, 종종 무관들을 모아 활쓰기 등의 군사훈련을 했다.



영화당

효명세자의 공부방,

기요헌(耆傲軒)과 의두암(倚斗巖)

기요헌과 의두암은 효명세자(1809~1830)가 아버지 순조(재위 1790~1834)에게 부탁해 지은 건물이다. 색깔도 입하지 않고, 화려한 장식도 없는 수수한 건물이다. 이곳에서 효명세자는 독서와 사색을 즐기곤 했다.



기요헌과 의두암

연꽃이 아름다운 연못, 애련지(愛蓮池)

블로문 안쪽에 있는 연못은 '애련지'이다. 이 연못에는 '애련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다. 연꽃을 좋아했던 숙종 임금의 연못과 정자에 '연꽃을 사랑한다'는 뜻의 이름을 붙였다. 애련정은 기둥과 천장 사이에 화려한 나무 조각이 있어서, 안에서 밖의 경치를 보면 마치 그림을 보는 듯 아름답게 보인다.



애련지의 애련정



놓지 않는 신비의 문을 찾아라!

애련지 가는 길목에는 한 장의 바위로 만든 돌문이 있습니다. 문의 이름은 '블로문(不來門)'이에요. 이 문을 지나 가면 놓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이 문을 지나가 볼까요?

